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이번 호에는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지정된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을 방문하여 바우터 배닝(Wouter Banning) 총지배인과 유한봉 시설팀장을 만나보았다.

글 **곽훈** KFPA 홍보팀 대리

고객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서비스 레지던스

프레이저사는 타이거맥주로 유명한 F&N 그룹의 계열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 개발회사이다. 현재 전 세계 18개국 29개 주요 도시에 Fraser Suites, Fraser Place, Fraser Residence, Fraser Resorts의 브랜드로 44개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서울 인사동에 ‘프레이저 스위트즈’ (Fraser Suites)를 선보이며 국내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2006년 7월에는 서울 순화동에 2호점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대표이사 김정수)을 오픈하였다.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은 고품격 여행자와 가족단위 고객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23층 높이의 서비스 레지던스로서 가구와 집기를 모두 갖춘 장기 및 단기 거주자들을 위한 스튜디오 타입에서 원 베드룸부터 포 베드룸, 그리고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23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바우터배닝 총지배인



유한봉 시설팀장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란 KFPA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해당건물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설의 설치상태, 유지관리, 경영진의 의식상태 및 이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KFPA 각 지부별로 추천한 건물에 대해 관리시스템,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전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에 69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에 의해 '프레이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은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되었으며, 지난 6월 21일에 본 호텔에서 우수건물 소유주, 손해보험 및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하였다.

바우터 배닝 총지배인은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됨에 따라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려 고객으로부터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철저한 화재안전관리

싱가포르 본사에서 운영 중인 Policies & Procedures(P&P)에 의거 화재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P&P에는 비상 시 행동요령, 작동요령, 점검기록일지 등 화재 및 재난 안전에 관한 모든 매뉴얼과 각종 위기상황에 따른 시간별 대처요령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2회 대피훈련, 소화기 작동훈련, 소화전 방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소방조직 및 역할, 투숙객 대피요령 등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싱가포르 본사에도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임직원 개개인의 역할 등이 기재된 명찰을 늘 착용토록 하여 유사시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생활화하고 있다.

고객 안전을 최고로

화재 시 투숙객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투숙객 피난 및 소방시스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호텔업계의 화재안전 관련하여 25년 경력을 지닌 유한봉 시설팀장은 “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소화전 등에 대한 작동 테스트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소방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 피난을 위해 객실 정리를 맡고 있는 메이드까지 화재 시 투숙객 피난 안내 및 확인까지 세세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킴으로써 투숙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영진의 안전의식도 매우 확고하다. 현행법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옥외 피난계단의 추가 설치할 계획하는 등 늘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탐방을 마치며...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편견을 없애고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프레이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을 둘러보고 나서 느낀 점이 많다. 유사시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투숙객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세부적인 것까지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통하여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는 서비스 레지던스가 되길 바란다. ☺